



전주 초고압변압기 공장 신설 610억 투자협약

15일 전주시청에서 고정상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조지훈 전주시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전만준 에이치디엠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초고압변압기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6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특정인 내정됐나?’

道 조직개편 ‘내실 없는 확대’ 논란
홍보·공보 인력 집중캠프 인사설
AI홍보국 신설…특정인 자리 의혹
관계자 “특정인 염두 지켜봐달라”

전북도가 지난 12일 민선9기 도정철학을 조직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민주권 실현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청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도청 내 한 중간간부는 “사실상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내실은 없고 빈 수레만 요란하다”며 실망감을 내비친 가운데 일부 자리에 특정인 내정설이 파다한 실정이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업유치지원실을 체감민생경제실로, 자치행정국을 도민주권국으로, 미래첨단산업국을 AI미래첨단산업국으로 이름만 바꾸는 외형 포장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국은 직제만 상향조정하며 생색내기에 그쳤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고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성과급, 상여금도 지급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만 대폭 늘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인력 증원의 상당수가 홍보, 공보, 미디어파트로 지난 지방선거 캠프 내 자기사람 심기 의도가 아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AI홍보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 도지사 선거캠프 출신 A씨의 3급 부이사관 홍보국장 내정설이 파다해 특정인을 위한 자리만들기 아니냐는 시각이 비등하다. 신설예정인 홍보국장의 역할은 사실상 대변인실에서

하면 되고 역대 전북도청에서 없었던 자리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특정인 신설보직 자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던만큼 그 배경에 관심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소통기획과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AI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주요 자리가 홍보, 공보, 언론파트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분청 조직은 현행 15실국 69과 284팀에서 16실국 75과 314팀으로 1국 6과 30팀이 확대된다. 전체 정원은 2026년 기준인력 배

정분 140명과 추가 행정수요 22명을 반영해 5,536명에서 5,698명으로 162명 증가한다. 특히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2,076명에서 2,160명으로 84명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이라는 도정비전을 실행할 추진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캠프 출신 특정인을 염두해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만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道, 집중안전점검 2년 연속 ‘최우수’ 특교세 확보

전국 17개 시·도 평가서 최고 성적
민관 합동 1520개 시설 안전점검
드론 3D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

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인데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인 19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

관·민간전문가가 함께 매년 추진하는 국가 안전관리사업으로 올해에는 306개 기관이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1,5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4,182명, 유관기관 관계자 472명, 공무원 2,653명 등 총 7,307명이

/장정철 기자

전주, 초고압변압기 생산 확장 860억 투자 유치 공장 신설

에이치디엠이, 탄소산단 610억 투자
154kV급 초고압변압기 생산 추진
2029년까지 건립·80명 신규 고용
동미전기 250억 포함 투자규모 확대

전북도는 15일 전주시청에서 ㈜에이치디엠이, 전주시, 연구개발특구전북본부와 610억 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9월 동미전기공업㈜의 250억 원 투자협약에 이은 추가 투자로, 두 차례에 걸친 총투자 규모는 860억 원에 달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전주 지역의 전력기자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지훈 전주시장, 고정상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전만준 ㈜에이치디엠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치디엠이는 2029년까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3만 6,975㎡ 부지에 610억 원을 투자해 154kV급 이상 초고압변압기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8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에이치디엠이는 동미전기공업㈜이

이번 투자를 위해 지난 9월 설립한 자회사다. 모기업인 동미전기공업㈜은 앞서 9월 10일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몰드변압기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는 기존 22.9kV급 배전변압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동미전기공업㈜이 발전소와 변전소 등 송전망에 사용되는 초고압변압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국내외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압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장 신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기반을 전주에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미전기공업㈜은 54년간 축적한 변압기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지난 2023년 매출액 254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으로 최근 2년간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7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투자가 지역 내 전력기자재 산업 기반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장 설립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참여했다. 민간전문기관인 포스코이앤씨와 협력해 급경사지와 교량 등 위험시설에 드론을 활용한 3차원(3D)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점검의 전문성과 정밀도를 높였다.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적극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점검 대상이 지난해 68개소에서 올해 116개소로 확대되는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위험요인 발굴에도 힘썼다.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했다. 행안부는 올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의 적절

성, 점검대상 선정과 점검방법,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전북자치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방식과 주민 참여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확보할 특별교부세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된 시설의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해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365일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KOREA SEED EXPO 2026

2026 국제종자박람회

2026. 10. 21. 수 ~ 10. 23. 금

민간육종연구단지·종자산업진흥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www.koreaseedexpo.com

AKEI

한국전산업진흥회

Approved International Exhibition+

www.koreaseedexpo.com

익산시 동물헬스케어 산업·반려문화 한자리에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 개막
국내외 전문가 포럼·기업박람회
투자유치 데모데이·컨설팅 진행
도그쇼·어질리티 등 반려문화 축제

전북도와 익산시는 15일 익산 웨스턴 라이프호텔에서 '2026 동물헬스케어 산업박람회'를 개막하고, 18일까지 4일간 산업·학술·반려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박람회와 전문가 포럼,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처음으로 연계해 산업 발전과 반려문화 확산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동물헬스케어 포럼과 기업박람회가 열린다.

포럼에서는 ▲동물용의약품·백신의 규제혁신과 품질관리 ▲동물헬스케어 연구혁신과 글로벌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과 산업화 전략 등을 주제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6일에는 동물헬스케어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R 데모데이와 컨설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기업의 사업 발표와 투자 전문가의 심사·피드백을 통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시민과 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인식표 만들기 등 시민 체험행사와 반려동물용품·사료 관련 기업의 전시·홍보 부



<사진=전북도>

견 어질리티, 반려견 달리기 대회 등이 펼쳐진다. 또한 동물보호법과 펫티켓 공개특강,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인식표 만들기 등 시민 체험행사와 반려동물용품·사료 관련 기업의 전시·홍보 부

스를 마련해 반려인에게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산·학·연 협력 기반을 넓히고,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장정철 기자



<사진=의원실>

박희승 의원, 국토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

공공기관이전 동부권 적합성 설명
“산업 기반 갖춘 곳 집적적원칙”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도로·철도 등

방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시·도별 숫자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기능을 받아낼 산업 기반을 갖춘 곳에 집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 동부권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설명

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제6차 국토·국

지도 건설계획과 고속도로 사업에 남원·장수·임실·순창의 속원 노선이 차질 없이 반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의원은 “산악 지형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로망은 곧 주민의 안전이자 산업과 관광의 기반”이라며 노선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KTX 노선 신설 등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교통과 공공 인프라의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오늘 전달한 현안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자치도, 열린 도지사실 2차 시범 운영

도민제안 8건 1대1 대면 안전 선정
지사·담당 부서장 참여 개선책 모색
제안 후속 점검·신청인 안내 지속

전북도가 15일 도청 1층 열린 도지사실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청에 직접 반영하는 ‘열린 도지사실’ 2차 시범운

영을 실시했다. ‘열린 도지사실’은 단순한 민원 접수와 처리에서 벗어나 도지사가 정책제안·제도개선 등 현안을 직접 듣고, 도민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참여형 소통 모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 의견 총 15건을 접수했으며, 도지사와의 직접 대화 필요성, 내용의 구체성, 시급성,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건을 대면 안전

으로 선정했다. 이번 2차 운영은 1차 시범운영의 공개형 대화 방식과 달리 도민과 도지사가 1:1로 마주 앉는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별 해당 부서장과 담당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사안별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전으로는, △수익형 호텔 운영을 위한 숙박업 기준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와 지원,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관광문화재 피해, △도청 내부망 AI 화의록 시스템 구축, △농지이용실태 조사 개선, △해양스포츠 훈련장 지원, △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이다.

이번 운영은 도민과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도지사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진=전북도>

2차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보완·개선하고,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1차 시범운영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1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변동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도민이 제기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열린도지사실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출마 등 무한 가능성”

임광현 인선 “숙고 끝 좋은 카드”
강훈식 시장 보궐 출마 가능성 시사
“전국적 인물·검증·당내의 신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

말길 수 있는 전천후형 차세대 리더”라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전국적인 인물이고, 역량이 검증됐고, 당 내외의 신뢰가 있다”며 “무한한 가능성과 활동 영역이 다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쉬고 경험한 것을 더 깊게 들어가는 숙성과 학습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도 “그게 얼마나 허용될지 모르겠다”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게 될 것임을 시

사했다.

김 대표는 ‘임광현 인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숙고 끝에 아주 좋은 인선”이라며 “많은 분들에게는 의외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리 없이 강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다 관계가 좋고 관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며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국무회의를 계속 함께 했다는 것이 갖는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교류와 수출 확대를 견인해 왔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3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461개 품종을 선보이고 해외 구매자를 초청해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선다.

박람회장은 품종전시포, 비닐온실, 실내 전시관, 경관 산책로 등 5.7ha 규모로 조성된다. 대규모 야외 품종전시포에서는 우수 품종 및 유전자원을 실물로 직접 볼 수 있으며, 대형 실내 전시관에서는 77개 기업·기관이 종자와 전

후방 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한다. 또 수출 상담회를 운영해 국내 종자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학술 행사를 통해 유전자 교정, 디지털 표현체 분석 등 최신 육종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부대행사로는 고구마 수확 체험, 종자산업 퀴즈쇼, 치유농업 체험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새만금을 잇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과 연계해 전북이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새로운 10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농협·공덕농협, 고구마 수출 확대

태국 수입업체와 3자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은 15일 태국 수입업체 Vachamon Food(대표 위파비)와 함께 전북 고구마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농협과 공덕농협, Vachamon Food 관계자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북 고구마의 성공적인 태국 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협약의 파트너인 Vachamon Food는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4,400만불, 한국 농산물 수입액 65만불 규모를 자랑하는 태국 내 신선과채류 취급 1위 유통업체이다. 현지 다수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전북 고구마의 현지 안착에 큰 시

너지가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수확 시기에 맞춰 Vachamon Food를 포함한 태국 내 주요 유통업체(립핑 슈퍼마켓, 푸드랜드) 관계자 8명을 산지로 직접 초청해 공덕농협의 재배단지, 저장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농협은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공덕농협은 수출 기준에 적합한 고품질 고구마를 공급하며, 바차몬 푸드는 태국 내 유통 및

판매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문용수 조합장은 “절저한 품질관리로 최고 품질의 고구마를 안심하고 공급하겠다”며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수출 물량을 늘려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 고구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해외바이어와 산지 농협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북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전주상의, 전주기전대학과 상호협력 협약 산학협력 활성화 MOU 체결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 본관 3층 AID 중회의실에서 김태환 회장조희천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기업의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역량과 기업 현장의 경험을 연계해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반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실무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확대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혁신 협력 △재직자·구직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김정태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와 2차전지 소재부품과가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전주상공회의소도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과 청년 취업 연계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텃밭 체험에서 AI 교육까지… 도시농업 새 역할

농진청, 서울식물원서 도시농업 학술토론회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도시농업의 교육·체험 방식에도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기존 텃밭 가꾸기와 원예 체험 중심의 도시농업에 AI와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보타니컬에서 ‘2026 도시농업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도시농업 체험·교육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도시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성정숙 선임연구원이 AI 시대 교육 체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재순 연구사가 AI 활용 도시농업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허근영 교수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진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한준 지도사가 학교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연안대학교 권혜진 교수는 도심형 스마트팜과 연계한 AI 체험·교육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도시농업을 단순한 작물 재배와 여가 활동에서 벗어나 미래 교육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하는 체험·학습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발 일정과 현장 보급 계획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부대행사로는 ‘제2회 반려식물 시화 작품 전시회’가 마련된다.

시민들이 반려식물과 함께한 일상을 시와 산문, 그림, 사진 등으로 표현한 작품 24점이 전시되며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AI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도시농업도 새로운 체험과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술과 현장, 시민 참여를 연결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생활 속 활용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급증’

사기이용계좌 3배 넘게 ↑ 금융사기 감시 강화 시급

NH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거래 탐지 건수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금을 입금받는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 관련 탐지는 3배 이상 급증해 금융사기 예방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탐지된 보이스피싱 관

련 이상거래는 모두 1만1,860건에 달했다.

연도별 탐지 건수는 2021년 1,440건에서 2022년 2,550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1,473건, 2024년 1,65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749건으로 급증해 2021년보다 90.9% 늘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992건이 탐지됐다.

특히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는 사기이용계좌 관련 탐지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 396건이던 사기이용계좌 탐지는 지난해 1,294건으로 3.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자계좌 관련 탐지는 1,044건에서 1,455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 8개월간 탐지된 이상거래 가운데 피해자계좌와 관련 건수는 7,754건

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사기이용계좌 관련 건수는 4,106건으로 34.6%였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한 뒤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한 금액은 2021년 126억5,600만 원에서 지난해 560억4,400만 원으로 약 4.4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예방금액은 308억9,600만 원이며, 2021년 이후 누적 예방금액은 1,474억5,500만 원에 이른다. 건당 예방금액 역시 2021년 약 879만 원에서 지난해 약 2,039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농협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나 확정 피해금액과는 구분된다.

농촌지역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이 중요한 농협은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감시와 피해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농민과 서민의 재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농협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신협, 취약계층에 5억 원 상당 난방용품 지원

전국 689개 신협 참여 지역별 수요 고려해 나눔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고영철, 신협재단)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총 5억 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신협의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활동으로, 2015년 신협재단 창립과 함께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았다.

매년 전국 신협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액은 56억 원에 달한다.

올해 캠페인에는 전국 689개 신협이 참여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에 이불, 온열매트, 히터 등 겨울철 난

방용품을 전달한다.

특히 각 신협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대상과 품목을 직접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각 신협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발굴하거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아동양육시설 등과 협력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김장김치 나눔과 반찬 배달 등 지역별 수요에 맞춘 활동을 병행해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전국 신협이 지역의 소외된



<사진=신협재단>

이웃을 직접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제공모

11월 3일까지 접수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제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9월 7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1개 사만 단독 참여로 인해 유찰 처리가 돼 사업자 제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제공모를 기존 공모와 조건을 동일하게 추진하며, 사업제안서의 접수 마감일은 11월 3일이다.

나경균 사장은 “이번 제공모를 통해 본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모 관련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dco.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승철 기자

농협 면세유 수수료 징수 사업소 ‘62%’ 전북 농민 부담 가중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유에 농협이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수수료 징수 사업소의 62%가 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지역 농협에서도 수수료를 이 두 배가량 차이 나는 데다 유가 상승에 따라 농민이 부담하는 수수료까지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에서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농축협 사업소는 74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유의 리터당 취급수수료는 17.5원에서 22.7원으로 29.8% 증가했다. 휘발유 수수료 역시 15.6원에서 19.7원으로 25.7% 상승했다.

농민들은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영농비 부담에 더해 취급수수료 증가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협 상당수는 법정 상한에 가까운 요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국 74개 사업소 가운데 57곳(77%)이 1.5% 초과~2%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들 사업소가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에 달했다.

수수료 징수의 적정성 논란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5월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농협의 반대 때문이었다.

농협은 면세유 관리 인력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별도의 비용 보전 대책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농협 본점 수는 2023년 4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22곳으로 감소했다.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감면하는 조합이 늘고 있는 만큼 농협별 징수 기준과 실제 관리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의원은 “면세유 제도의 취지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면세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농가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까지 함께 증가하는 구조는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사례를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취급수수료 전면 폐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대 김대혁 교수, 농진청장 표창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및 유용 미생물 산업화 기여 인정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 김대혁 교수가 농업미생물 연구와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한국 생물공학회 학술대회 기념식에서 한성옥 한국생물공학회장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을 대신해 김 교수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김 교수는 농업미생물 분야의 생명공학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

편,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으로서 대학의 연구 성과를 농업 및 산업 현장과 연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농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 기술의 개발과 보급, 산업화를 전방위로 지원하며 농업미생물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교수가 이끄는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유용 미생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김대혁 교수는 “농업미생물 생명공학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그린



바이오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분야”라며 “앞으로도 대학 연구와 센터의 산업화 지원 역량을 긴밀히 연계해 국내 농업미생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교육청, 맞춤형 고교생활·대입 설명회

예비 고1 대상 대입 개편안 및 학업 설계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과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돕기 위해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17일 오전 10시 전주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 2층 컨벤션홀에서



천호성 교육감

중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예비 고1 맞춤형 고교생활 및 대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전환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고,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에는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김창복 진학지원관(전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대표강사)이 강사로 나서 고교 입학 전 필수 점검 사항과 진로 연계 학업 설계, 대입 준비 방향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장 참석자 전원에게 자료집을 배부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강연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산 중등교육과장은 “고등학교 진학은 진로를 구체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막연한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꿈에 맞는 고교생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누정음악회-부안편’ 17일 공연

우리 가락 매력 선사

부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군과 내소사가 협력하는 2026 기획공연 ‘누정음악회-부안편’을 오는 17일 오후 3시 내소사 봉래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정음악회는 선조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풍류를 즐기던 누각과 정자를 무대로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일상 속 여유와 우리 가락의 매력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이 펼쳐지는 내소사 봉래루는 천년고찰 내소사의 역사와 자연의 정취를 간직한 누각으로,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전통예술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봉래루 앞마당에서 열리는 본공연은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명인의 무대와 개성 있는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전통 민속음악 단체 ‘율마’가 민속음악 ‘푸살’과 민속무용 ‘송화영류 교방승무’를 선보이며 공연의 문을 연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인 박선옥 명인이 장구 연주자 이용우와 함께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을 들려주며 깊이 있는 전통 소리의 매력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국악단체 ‘더늠공작소’가 ‘강강술래’, ‘풍년가’, ‘아리랑’ 등 친숙한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한편, 오후 3시 본공연은 무료로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오후 7시 명상 음악회는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내소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성료

완주군이 군청 테니스장에서 9일간 펼쳐진 ‘ITF 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이 공인한 이번 대회는 세계 주니어 랭킹 점수(포인트)를 부여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국내외 유망주들이 세계 무대 진출과 프로 선수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중요한 무대다.

지난 11일까지 치열하게 이어진 경기 결과, 남자 단식은 고키 나라(일본)가, 여자 단식은 미야자와 사키노(일본)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복식 경기에서는 한

국의 오승민과 중국의 한레이 조가 남자 복식 우승을 합작했으며, 여자 복식은 니시와키 미유·스즈키 미나미(일본) 조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등 580여 명이 참가했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이번 ITF 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를 훌륭히 치러내며 완주군의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완주에서 땀 흘린 국내외 유망주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창작공방육성회 ‘가림공예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창작공간 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진안창작공방육성회가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안창작공방에서 ‘가림공예제’를 개최한다.

‘가림공예제’는 진안을 비롯한 산촌 지역의 오래된 생활문화와 풍물을 공예로 재현하고, 지역에서 전해오던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짚풀 계란꾸러미 만들기 경연, 찻세넷 제작 시연 등이다.

참가자들은 종이 펄프 계란판이 보급되기 전 사용했던 계란꾸러미를 직접 만들고, 겨울철 찻세를 잡는 데 쓰던 밧과 어

린이를 태우고 끝낸 나무수레를 활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창작 교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풀어내 방문객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최영규 사무처장은 “창작공간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예술을 연결하고 지속적인 창작과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진안창작공방육성회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 2천년의 역사 ‘미룡동 고분군’서 뿌리 찾다

마한시대 역사적 가치 규명 학술대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3일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 인문도시센터와 공동으로 국립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 노관순홀에서 역사·문화유산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미룡동 고분군의 위상과 역사적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군산의 역사를 근대항구도시의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한시대까지 확장하고, 미룡동 고분군을 통해 고대 군산의 역사적 위상과 해양문화의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마한시대의 무덤 유적으로, 당시 군산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구조, 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마한 세력의 발전 과정과 주변 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 조사 성과 △군산 미룡동 고분군 묘제 검토와 비교 △묘역 전개와 토기 문화의 변화 △문헌 기록으로 본 고대 군산지역의 이해 △국가유산 지정 전략과 활용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굴조사 성과와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룡동 고분군의 역사적 성격과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유적의 성격에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명칭 정비와 국가유산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군산의 고대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보존·정비 정책과 연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년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전북지역이 마한역사문화권으로 포함되면서, 지역의 마한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정비를 국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군산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룡동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국가유산 지정에 필요한 학술적 근거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

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대역사 교육·전시·체험 콘텐츠 발굴 등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근대항구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을 이어오며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 온 역사도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군산의 고대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미룡동 고분군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유산 지정과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추진해 군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미래세대에 소중히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을철 호흡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1. 외출 후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실내습도 조절 (50~60%)



4. 충분한수분 섭취



‘더욱 안전하게’… 익산시 공원등 QR코드 표찰 설치

익산시가 공원등 시설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밝고 안전한 야간 공원 환경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영등시민공원과 어양공원, 모현공원 등 3개 공원에 이달부터 공원등 규알(QR)코드 표찰 333개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이용객이 조명 고장이나 불완 사항을 발견했을 때 해당 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원등에 부착된 규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시설물의 고유번호와 위치정보가 즉시 접수된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원 조명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원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병행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장수필 익산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은 “공원등 고장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물을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아이들의 춤과 율동에 웃음꽃 정읍 어린이예술제 열려

아이들의 춤과 율동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전했다.

지난 14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는 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 웃고 정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성미)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공연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서로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노인복지관 회원과 조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내 9개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준비한 춤과 율동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꾸몄다. 아이들의 활기찬 공연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학수 시장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는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를 전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공공공지 700필지 정비… 관리 효율 높인다

익산시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용지를 정비해 공공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익산시는 공공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이나 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공지 약 700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공용지는 하나의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달라 재산 관리와 토지 관련 행정업무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공공사업 준공자료와 지적전산자료,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토지를 확인했다. 이후 재산 관리부와 협의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정리하는 등 지적공부 정비를 완료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재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처리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가 안전관리 최선 2(題)

축사 겨울채비, 미리 살핀다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축사시설 47곳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2022~2025년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우려되는 취약 축사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축종별 점검 대상은 △한우 21곳 △젖소 1곳 △돼지 10곳 △닭 2곳 △오리 7곳 △양봉 3곳 △기타 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 지붕과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제설장비 구비 여부 △전기시설비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표에 따라 현장

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보수와 보완이 이뤄지도록 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가 자체점검과 전화점검을 병행한다.

현장 여건에 맞춰 점검을 진행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는 축사시설 파손과 가축의 저체온증,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도 축사 구조물과 전기·난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를 갖추는 등 자율적인 재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작업과 도로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작업 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확철에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고 도로 운행도 늘면서 전복·충돌·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센터는 농업인들이 작업 준비부터 운행과 작업을 마칠 때까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동장치, 타이어,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안전띠가 설치된 농기계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맞는 보호장구도 갖춰야 한다.

경사지나 좁은 농로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밤이나 새벽에 도로를 운행할 때는 등화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저속차량 표시가 잘 보이는지 점검해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농기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 후에는 농기계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장시간 작업에 따른 피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농촌지역과 관계자는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사고 없는 수확기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치유농장’ 자연 쉼터로 도약

자연경관·음식명상 엮은 전문 힐링 공간 9곳 지원

푸른 대나무숲과 흙냄새 가득한 익산의 농촌 마을이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보듬는 자연 쉼터로 거듭나고 있다.

익산시는 농촌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농업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서적 안식을 선물하는 ‘치유농장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9곳의 특색 있는 치유농장을 일궈냈다.

‘치유농업’은 농산물을 단순히 수확하는 기존 체험 방식을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회복

하도록 돕는 새로운 산업군이다.

올해 사업 대상인 함라면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은 울창한 대나무숲과 아늑한 야와 정원을 품은 대표 쉼터다. 대나무 숲길 산책과 명상, 계절 꽃을 활용한 원예 활동, 지역 농산물로 만든 치유 음식 맛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췄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야와 교육장과 편안한 휴게 공간, 치유푸드 체험장을 맡겨 정비했다. 특히 혈관 건강과 스트레스 지수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맥파 측정 장비까지 갖춰 전문적인 치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는 오는 16일 익산 북부노인복지관 회원 8명을 초청해 ‘내 몸을 깨우는 시간’ 시범 행사를 연

다. 참가자들은 △잔디밭 보물찾기 △가을 화분 만들기 △숲속 명상과 따뜻한 치유차 마시기 피크닉 점심 식사를 즐기며 자연 속 온기를 나눈다. 시는 체험 전후 맥파 측정을 통해 심신 회복 효과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치유농장을 복지관 등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과 꾸준히 연결해 시민 복지를 높이는 한편, 농촌 마을의 든든한 소득 모델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정화 익산시 농촌지원과장은 “마을마다 지닌 자연환경이 다른 만큼 농장별 개성을 살린 치유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익산의 맑은 자연이 시민들에게는 따뜻한 쉼표가 되고 농가에는 지속 가능한 새 소득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11억 추정

총 4,498건 조사 자진 납부 이끌어

군산시는 올해 3분기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498건을 조사하고, 누락세원 11억 4,600만 원을 발굴·추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정 사례는 대형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3억 2,600만 원, 법인 소유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가면 부동산의 가면 요건 미충족 3억 40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

고 누락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세원 발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통해 납세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한 결과,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업단지 가면 부동산의 가면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납부기한 전에 11억 2,300만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는 세무조사 추정액과는 별도의 성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내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타 지자체의 선행 조사기법을

도입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안분 내역을 점검하고, 군산시에 귀속돼야 할 세액 약 1,600만 원이 타 시·군에 잘못 안분·납부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 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율점검 회의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적극 도입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기업친화적이고 컨설팅 중심의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백제의 사랑 노래, 정읍의 가을축제로”

정읍사문화제 24일 개막 시민 화합의 장 마련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謠)’와 정읍사 여인의 사랑을 기리는 ‘제37회 정읍사문화제’가 오는 24~25일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전통 의례와 공연, 체험에 시민의 날 기념식과 평생학습 축제가 더해져 정읍의 가을을 풍성하게 채운다.

사단법인 정읍사문화제제정위원회(이사장 오종태)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 정읍사와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채수희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 기념

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행사로 구성했다.

제32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제19회 평생학습축제, 출향인 환영행사도 함께 열려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이 진행된다. 정읍사문화제 부도여인상에는 심순옥 씨, 정읍시민의 장 애항봉사장에는 박순덕 씨, 명예시민의 장에는 박영일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제19회 평생학습축제도 펼쳐진다. 발표회에는 12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학습 성과를 선보인다. 25개 팀은 홍보·체험 공간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

객에게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을 반기는 자리도 마련된다. 출향인 환영행사에는 220여명의 출향인이 참석해 고향의 정을 나누고 정읍의 발전상을 공유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백제 의상 체험과 도장 모으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 새로운 체험도 선보인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이라며 “제37회 정읍사문화제가 시민과 관광객, 출향인이 함께 어우러져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고 고향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교통 약자 보호 ‘총력’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

군산경찰서(총경 임정빈) 수송지구대에서는 최근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차대 보행자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교통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에 수송지구대는 야간 시민성이 뛰어난 야광 반사판 100개를 자체 제작해 보행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2개소를 방문해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양 활동 협조를 요청하고, 초등학교 5개소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현장을 찾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구역 주의 안내와 자체 제작한 야광 반사판을 아이들의 책가방에 직접 부착해 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임정빈 군산경찰서장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교통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차량 70여대 합동점검

불법 구조변경 등 6건 적발

정읍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안전단속원으로 합동단속해 불법 구조변경(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등 총 6건을 적발했다.

시는 시청 교통과 직원과 공단 전북본부 안전단속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정읍 시내 일원에서 불법자동차 단속·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승인 없는 불법 구조변경 △변호판 훼손·가림 등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와 불법 소음기 개조 등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익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안’,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동인의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최재현 의원)을 채택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원상 의원 -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의 실효성 확보와 야간 대응체계 개선 촉구

▷정영미 의원 - 익산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 - 기후위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촉구 ▷김미선 의원 - 의회 삭감 사업 우회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조규대 의원 - 노후 행정복지센터의 단계적 신축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기 설치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김충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의는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가족과 함께하는 ‘맘껏 주말 축제’ 개최

군산시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송근린공원 내 맘껏광장에서 어린이 동반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6년 맘껏 주말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아동들에게 의미있고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16개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물 교감 체험(소통물 7종) △초콜릿 막대과자 만들기 △에어로켓 만들기 △볼펜 꾸미기 △곤

충블록 △모투공예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성한 체험 부스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아울러 군산시는 이번 주말 축제뿐만 아니라 11월까지 매주 주말(토·일)마다 맘껏광장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맘껏 주말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맘껏 웃고 뛰어놀며 활력을 충전하길 바란다”며 “올해 11월까지 이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에도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제53회 고창모양성제 화려한 출발”

‘컬러풀 고창’ 군민과 학생이 함께 만든 축제의 첫날

‘제53회 고창모양성제’가 15일 고창읍 일원과 고창읍성에서 펼쳐진 대규모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5일간의 축제 여정을 힘차게 열었다.

축제 첫날 하이라이트는 단연 ‘컬러풀 고창(Colorful Gochang)’을 주제로 펼쳐진 거리퍼레이드다. 거리퍼레이드에는 14개 읍면 주민과 고창군의회, 고창모양성제 축제추진위원회, 기관·사회단체,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고창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단순히 행렬을 따라 걷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돼 각자의 아이디어와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리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이 이어졌고, 관람객들도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축제의



시작을 함께 즐겼다.

더불어 지역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을 만날 수 있는 ‘고창교육예술제’도 함께 펼쳐져 축제 첫날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교육예술제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재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쳤다.

특히 지역의 대표 축제인 고창모양성제와 교육예술제가 함께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축제의 주제로 참여하는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지역의 미래 세대가 만들어가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첫날부터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알린 제53회 고창모양성제는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9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에서 이어진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 첫날부터 함께해 주신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고창읍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오늘의 고창이 가진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부안군의회, 제375회 임시회 폐회

주요 사업장 19개소 방문 조례안 등 의안 심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현기)는 15일 제37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회기 동안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19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율발언을 통해 김원진 의원은 ‘새만금 간척 이후 변화한 동진갑자 재배환경과 농가 종합 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재배환경 변화와 난방비 부담 등 갑자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난방유 및 고체연료 지원 확대, 씨감자 보관시설 확충, 중형 지하수 관정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했고, 이어 임정숙 의원은 ‘다중재해 시대, 농업기반시설의 선제적 보강’을 주제로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업기



반시설의 중장기 개보수 계획 수립, 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 강화, 국·도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선제적 보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강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방의 법정재원을 보장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확보와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이현기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사진=부안군의회>

고창군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선정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육아복합문화공간 조성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고창형 육아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군육아종합센터 옆 유희부지에 연면적 약 132㎡, 지상 2층 규모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세척·

소독실, 놀이 체험실을 조성하고 2028년 초 문을 열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난감도서관은 단순 대여시설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머물며 체험하고 소통하는 육아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 양육 부담을 덜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2015년 전국 군 단위 최초로 건립된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 7만8000명이 이용한 권역 거점 시설이지만, 장난감 보관공간 부족과 위생관리 한계, 체험공간 부재 등의 불

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북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중 출생아 수(163명)도 가장 많으며, 임신·출산·육아 잠재 수요자의 약 60%가 고창읍에 거주해 거점시설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육아종합센터라는 검증된 기반 위에 부족한 기능을 채워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11월 27일까지

김제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

우 실의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한 변호판영치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영치, 권역별 합동영치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며,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부서의 징수실적 점검 및 체납관리 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와 징수독려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정은 “세외수입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뮤지컬 ‘빨래’ 30일 김제 공연

20일 오전 예매 시작

세대를 초월한 깊은 공감과 울림을 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 ‘빨래’가 오는 30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서울의 한 동네로 새로 이사 온 직장인 나영과 몽골 청년 솔통고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다. 작가의 꿈을 품고 상경해 서점에서 일하는 나영은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 이웃집에 사는 솔통고를 만나게 되며, 직장에서 부당하고 위기에 처한 나영과 역

울하게 월급도 받지 못하고 쫓길 위기에 놓인 솔통고 등 고단한 서울살이에 지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나는 이들의 따뜻한 연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귀농귀촌인 함께하는 동행 페스타 교류와 화합 다져

고창군이 15일 동리국악당에서(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와 전북 및 전국 귀농귀촌연합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귀농귀촌인 동행 페스타’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와 전북 및 전국 귀농귀촌연합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전국의 귀농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고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귀농귀촌인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올해는 고창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고창모양성제 첫날인 15일에 동행 페스타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전국에서 고창을 찾은 귀농귀촌인들은 동행 페스타와 모양성제에 함께 참여해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기부금을 고창군에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했고 전국귀농귀촌중앙회 정용준 회장이 고행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고창군을 비롯해 전북 및 전국 귀농귀촌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목과 교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찾은 귀농귀촌인들이 동행 페스타와 함께 모양성제를 즐기며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고창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도로명주소 바르게 알기 이벤트

시민 관심·이해도 향상

김제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주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로명주소 바르게 알기 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신속한 위치 파악, 정확한 우편물 배송,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소 체계다. 하지만 기존 지번 주소에 익숙한 시민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시는 퀴즈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김제시 소셜미디어 구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김제시 SNS 채널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QR 인종 후 응모하면 된다.

경품은 모바일 배달앱 기프티콘이며, 응답자 중 정답자 100명을 추첨해



<사진=김제시>

오는 30일 김제시 SNS에 당첨자를 게재할 예정이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가 시민들이 주소정보시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필수”

축산농가의 의무적 이행

부안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필수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축산농가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 규모(소 100㎡, 돼지 50㎡ 등) 미만 영세한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서에서는 부숙도 검사 미이행, 부숙도 기준 미준수 및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상 미

기록 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부서는 축산농가가 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독려를 위해 7~11월 부숙도 정기 검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방법은 시료봉투(밀봉 가능한 지퍼백 등)에 500g 가량의 퇴비를 담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퇴비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문화원, 고창의 숨결을 담은 ‘역사 유물 특별전’ 개최

고창문화원(원장 이현곤)이 제8회 고창문화원의 날을 맞아해 ‘고창역사 유물 특별전시회’를 고창문화원 다목적체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고창문화원이 그동안 소장해 온 지역의 소중한 역사 유물들을 약 150여점을 군민과 고창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창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창의 뿌리 깊은 역사를 증명하는 다양한 시대별 유물들이 대거 선보이며, 지역민들이 우리 고창의 역사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역사 유물 특별 전시회를 통해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우리 유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고, 고창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관광과,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 동참

(제)부안군군농민재육성재단은 부안군 관광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기후원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1만 원의 정기후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1만 원의 기적’을 널리 알리고, 군민 모두가 지역 인재 육성에 함께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이날 직원들에게 후원금이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다자녀·특기장학금,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지원 등 지역 인재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을 안내했다.

관광과 직원들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에 공감하며, 작은 정성이 모여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김하순 관광과장은 “매월 1만 원의 작은 후원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더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정기후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 친선교류행사 가저

김제시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영순)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자매도시인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행숙) 회원들을 초청해 지역 간 우호증진과 여성단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친선교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별곡제, 금산사,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김제의 주요 관광지와 미래농업현장을 둘러보며 양 도시의 문화와 발전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와 동해시는 지난 1999년 4월 최초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양 도시 여성단체는 2018년 친선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여성단체 간 우의를 다지고 지역의 문화·관광·특산물 등을 공유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기념행사에서는 양 도시 여성단체 회원들의 상호 소개와 환영사 및 답사, 축사와 함께 지역특산품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졌다. 시는 지평선 쌀과 고추장을,

동해시는 건어물 3종 세트를 전달하며 양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고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양 도시 여성단체 회원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첨단기술과 농업을 접목한 미래 농업의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농업인 육성소 스마트농사에는 양 지자체 미래농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양 도시 여성단체의 만남은 지역 간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교로써, 이번 방문을 통해 김제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첨단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김제의 새로운 모습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햇빛소득마을 공모 9곳 모두 선정

신청한 9개 마을 모두 최종 선정 ESS 계통연계 조건 충족 과제 내년 착공·상업운전 목표 추진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 공모사업’에 관내 9개 마을이 신청해 9개소 모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 지원체계를 가동해 주민 동의를 확보, 협동조합 설립, 부지 선정 및 계통 연계 타당성 검토 등 공모 요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신청 마을 9개소 전체가 공모

기준을 충족하며 선정률 100%라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선정된 9개 마을 모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계통 연계 조건부 선정으로, 향후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통연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ESS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후속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

이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마을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창출된 수익금은 마을 공동체 복지 기금, 주민 연금 등으로 활용돼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촌 소득 모델 및 인구 유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향후 사업 시행과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사업 착공 및 상업운전 개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장류축제 개막…글로벌 K-푸드 축제 도약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후 첫 개최 ‘시그니처’ 글로벌 고추장 담그기 등

순창군의 대표 축제인 ‘제21회 순창장류축제’가 15일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막을 올리고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축제는 ‘2026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순창의 전통 장류문화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푸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행사 기간을 4일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축제의 규모와 내용을 한층 풍성하게 구성했다. 주무대

로 핑크플리 공원 인근으로 옮기고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즐길 거리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 기간에는 순창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전통 발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대표 행사인 ‘글로벌 고추장 만들기’는 16일과 17일 진행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순창 고추장의 매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주말인 17일과 18일에는 순창 고추장을 임금에게 올리던 모습을 재현한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을 비롯해 떡을 활용한 이색 퍼포먼스인 ‘순창 발효마을 1997’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

는 미식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국내외 셰프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쿠킹쇼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파브리의 장류 미식 요리교실 등을 통해 순창의 전통 발효식품이 현대적인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도 풍성하다. 메주와 장아찌, 막걸리 만들기를 비롯해 증강현실(AR) 게임인 ‘장추왕을 찾아라’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축제장 곳곳에는 먹거리 장터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 부스가 마련됐다. 장류제품 구매 시 20% 할인과 구매금액의 10% 상당 상품권을 제공하는 혜택도 준비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초남이성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발판 다져

국가사적 지정 기념 학술대회 체계적 보존 관리·등재 전략 논의

완주군이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와 손잡고 15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연 ‘천주교 성지, 완주 초남이성지’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남이성지 일원인 완주 남계리 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기념하고, 그간 쌓아온 발굴·연구 성과를 나누며 세계유산 등재를 향한 발전 과제를 짚어보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에서는 초남이성지를 둘러싼 천

주교인의 신앙과 삶을 다룬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최신 조사 성과와 과제, 출토된 백자 사발과 명문 필체 분석, 인골 복원 성과, 세계유산 등재 전략 등을 다룬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유적에서 나온 무덤과 백자 사발, 인골 등에 대한 고고학 조사와 과학 분석 성과를 폭넓게 짚어보며 신해박해와 신유박해 당시 순교자들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초남이성지가 지닌 역사적 무게를 한층 구체화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적의 학술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전략,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발판 삼아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넓히고,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이어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초남이성지의 국가 사적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초남이성지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역사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속도’ 활성화 협약 체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맞손 제도 개선·공모과제 발굴 등 협력

남원시는 15일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남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국가사업 발굴, 기업 유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정책연구회와 바이오산업 연구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남원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화 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입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국회 포럼·정책토론회·세미나 공동 기획 및 개최 ▲국책연구개발 과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 정부 공모사업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 기획 ▲국내외 바이오 기업·연구소 유치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천연물·바이오소재 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특화 바이오산업 정책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제도 연계한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와 입법 제언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국제 공동연구개발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순창군>

순창 자유허방재단, 道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

순창군 지역자유허방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1마을 1자유허방단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자유허방재단을 대상으로 우수 방재활동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유허방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집중호우 대응과 재난 취약지역 예방 등 현장 활동실적을 비롯해 조직 역량 강화, 홍보활동 등 총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순창군 지역자유허방재단은 1차

서류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차 발표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 8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활동과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등 현장 중심의 방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유허방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방재단이 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동버스 운영

내달 9일 반다비체육센터서 진행 근골격 등 농작업 취약질환 검진

남원시는 오는 11월 9일 이동검진 버스를 운영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약중독과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 질환 등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질환을 중심으로 검진을 지원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이다. 연령은 51세부터 80세까지

로,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가 해당한다.

남원시에서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678명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388명이 검진을 마쳤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나머지 대상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동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진은 여성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이동식 검진 버스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진 장소는 반다비체육센터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업e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검진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 공로패 수상

2016년 최우수 2020년 우수상 직장 문화 확산·소통 증진 성과

완주군이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넓히고 독서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공로패를 받는다.

군은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4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독서경영으로 직장 내 독서문화를 일

구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 증진에 힘쓴 우수 기관을 격려하는 자리다.

군은 지난 2016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줄곧 재인증을 이어왔다. 앞서 2016년 최우수상과 2020년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공로패 대상자로 뽑히며 10년 가까이 이어온 독서경영 성과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일일 속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독서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사기 예방 협력 강화

군경찰관계기관 치안 현안 공유 보이스피싱·노소 예방 업무협약

완주군이 15일 완주경찰서 강당에서 ‘2026년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경찰서장,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장으로 꾸려진 19명의 치안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지키고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예약부도(노쇼) 사기 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민·

관·경 공조 체계를 한층 견고히 다졌다.

이어 신규 및 연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완주경찰서의 주요 치안 업무 보고, 당면 치안 안전 토의가 차례로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오늘 체결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을 비롯해 오는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치안 의제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올해 8월 위원 재위촉을 마쳐 2년 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신규 착한가격업소 모집 지원 선정 가점·온라인 홍보 혜택

순창군이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순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음식점을 비롯해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체육시설, 학원, 수산업, 세차장, 사진관,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창과 함께 종량제봉투, 주방용품, 위생복 등 업종별 희망 소모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군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유선으로 확인해 준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국 최대 향어 주산지’ 완주군 이서 황토 향어축제 17일 개막

완주향어영어조합발전과 (사)한국향어양식협회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잔디마당 일원에서 ‘제8회 이서 황토 향어축제’를 연다.

전국 최대 향어 주산지인 완주의 황토 향어를 널리 알리고, 내수면 어가의 판로를 넓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다.

축제의 백미인 ‘황금 향어를 잡아라!’는 맨손으로 살아있는 향어를 잡는 이색 체험으로, 축제 기간 총 4차례 열리며 1등에게는 금 반 돈을 경품으로 준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이서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비롯해 주민 문화공원, 도시락 콘서트, 풍선·버블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가득 펼쳐진다.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을 위한 여류 전시와 금붕어 잡기, 에어바운스 놀이시설도 상시 운영한다.

축제 둘째 날인 18일에는 방송인 조영구 씨의 사회로 인기 가수 ‘자전거 탄 풍경’, ‘유리상자’ 등이 무대에 오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하는 지역주민 가요제’ 본선이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전북도는 전국 향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완주군 이서면은 전북 생산량의 약 70%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향어 주산지다. 군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이서 황토 향어축제를 지역 수산물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완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천안직접자봉사회 남원으로 대규모 효도관광

천안시 직접자봉사회가 주관한 대규모 효도관광단이 지난 14일 남원시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천안지역 어르신 1,200여 명이 참여해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만끽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번 효도관광은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 직접자봉사회의 헌신적인 준비로 성사됐다. 1,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함에 따라 남원시와 남원시협의회에서 환영행사를 철저히 지원하며 온정을 더했다.

남원의 대표적인 명소 사랑의 광장에서 규모에 걸맞는 행사가 이뤄졌다. 천안 직심자봉사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 역시 “천안 직심자 봉사회와 1,200명 어르신들의 남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행사가 두 지역간 따뜻한 교류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기자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장수군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제도적 기반 마련



장수군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사진)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핵심 안전인 ‘장수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흔히 ‘묻지마 범죄’로 알려진,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교육·홍보와 방법용 CCTV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치료비·위로금 등 사회적 자원의 연계 근거도 담았다.

‘장수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장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방법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6 진안고원푸드페스타 전통시장 연계 이벤트 다채

진안군이 청정 진안고원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음식을 선보이고, 지역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미식 대축제 ‘2026 진안고원푸드페스타’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안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행사장뿐만 아니라 진안고원시장까지 즐길 거리를 확대해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 연계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장 미션 BINGO!’는 진안고원시장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빙고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미션 완료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는 진안 가공식품과 로컬푸드를 소개하는 브랜드관, 지역 외식업체가 참여하는 음식 판매 부스와 푸드카트존,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플라마켓 등이 운영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산림청 2026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임실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6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임실읍 이인리 특용수 조림지가 우수조림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4ha의 규모의 임실읍 이인리 읍나무 특용수 조림지가 지자체의 정책 지원과 산주의 밀착형 사후관리가 조화를 이룬 선도적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림지는 지난 2024년 1년생 읍나무 묘목 6,000본을 식재한 이후, 지속적인 풀베기와 수형 관리, 방제 작업을 추진해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유지해 왔다.

또한, 식재 3년 차에 접어들어 울해 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직거래 등 판로를 다각화하여 첫순을 성공적으로 수확하고 첫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존 목재 생산 중심의 조림에서 벗어나, 식재 초기부터 임가 소득을 창출하는 조기 소득형 지속가능 경제림 모델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임실=한병열 기자

황인홍 군수, 전국농어촌군수協 이끈다

제7대 회장 선출 정책 발굴·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 역할 다짐

황인홍 무주군수가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2028. 6. 30.)됐다.

전국 57개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바로 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군들과 역량을 모아 정책 발굴과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군지역 발전을 위해 무주군을 비롯한 7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



황인홍 무주군수가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무주군>

한 공동 대응과 정책건의, 회원 군 간 교류·협력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무주 총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농어촌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

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황인홍 무주군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회장(2018. 10.~2022. 10)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장(2024. 1.~2026. 6)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에도 선출됐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 141명·전북 12명 발생

진안군은 올해 관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141명이 발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2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진안군에서도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농작업과 등산 등 야외활동이 잦은 주

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고열,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 예방이 중요하다.

진안군은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풀밭에 눕지 않기 △귀가 후 즉시 샤워하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뒤 2주 이내 고

열, 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초기 증상이 감기 등 다른 질환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민수 진안군보건소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산악관광에 AI 입힌다

AI 기반 아웃도어 스포츠 통합 플랫폼 개발사업 추진 총사업비 26억여 원 투입

무주군이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아웃도어 스포츠 통합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산악·아웃도어 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마트 기술로 스포츠 활동과 관광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26

억 2천5백만 원(국비 21억 원, 군비 5억 2천5백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무주군은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훈련·코스 정보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80km의 다목적 스마트 레이스 코스도 조성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전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장은 “2027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기존의 산악 관광 자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며 “무주가 단순히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관광지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산악·아웃도어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레일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상시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새 임원진 위촉

지역 인재 육성 박차

장수군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이 신입 이사 위촉식과 퇴임 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으며, 퇴임 이사 1명이 전임 임원진을 대표해 함께했다.

새롭게 위촉된 임원은 총 12명으로, 오는 2030년 9월 16일까지 장학 및 교육지원 사업을 이끌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행사는 신입 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퇴임 이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며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 온 퇴임 임원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장수군 교육 발전 방향과 재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장학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의



장수군은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이 신입 이사 위촉식과 퇴임 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무주군>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재단은 이번 임원진 구성을 계기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지원 사업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올해 처음 시행한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 사업’에 이어 ‘진로·직무 심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

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최훈식 이사장은 “지난 4년간 장학제도 개선과 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 사업 확대에 힘써주신 퇴임 임원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신입 임원진과 함께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의암주논개 탄신 제례 봉행

탄신 452주년 기념

장수군은 논개사당인 의암사 영정각에서 의암주논개 탄신 제452주년을 기념하는 제례를 봉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제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암주논개의 숭고한 애국충절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례는 최훈식 장수군수가 초헌관을, 정상득 장수군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유태호 전주일보 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암주논개의 넋을 기리며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의암주논개는 1574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당시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투신해 순국한 충절의 인물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과 애국충절 정신은 오늘날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군은 매년 의암주논개의 탄신을 기념하는 제례를 봉행하며 논개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우리품종 명품 사과단지 조성 박차

4억 규모 특화단지 조성

진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내 육성 우수 사과 품종을 집중 재배하는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는 2년차 사업이다. 진안군은 2026년에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조성에 집중하고, 내년인 2027년에는 우리 품종 사과 묘목을 본격적으로 식재해 명품 사과단지의

기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진안군의 대표 사과 주산지인 백운사과작목반이다. 이들이 조성하는 사과면적은 총 6.7ha이며, 주요 식재 품종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시장성이 높은 국내 개발 신품종 ‘이지플’과 ‘골든볼’을 비롯해, 추석 명절 대표 품종 ‘홍로’ 등이다.

군은 외래 품종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 트렌드에 맞춘 명품 사과를 생산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의회, 관급공사 대금 정산 안정성 확보 촉구

임재성 의원 5분발언

장수군의회 임재성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의 선제적인 역할과 상생 문화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의원은 “건설 현장 일선에서 자재를 납품하거나 장비를 대여해 주는 지역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공사 현장 주변 음식점들 역시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상 식사를 제공한 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식대를 정산받지 못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임재성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관급공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안전거래 가이드’ 제작 및 보급 등이 다.

마지막으로 임재성 의원은 “최소한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대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 군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눈물 아닌 온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의회,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역량 강화

진안군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방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안의 적정성과 사업 확대에 힘써주신 퇴임 임원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신입 임원진과 함께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비롯해 세입·세

출예산의 이해 및 분석, 순세계영영금회 회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7년도 본예산 심사 대비 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례를 바탕으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집행실적 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다루며 실제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창 무장면 지사협 결식위기가구 50세대 반찬 지원

고창군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윤희, 민간위원장 류창현)는 지난 13일 무장면 결식위기가구 50세대에게 밀반찬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결식위기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4종으로 구성된 밀반찬을 위원들이 가정방문 및 안부인사와 함께 전달하였다.

무장면은 매월 결식위기가구 대상 반찬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항상 결식위기가구의 안부 확인 및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강윤희 위원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밀반찬과 함께 따뜻한 10월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고 전했다.

류창현 위원장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무장면의 어려운 분들이 전달받은 반찬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소방서, 익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익산시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익산소방서의 따뜻한 고향사랑이 전달됐다. 15일 익산 시청 시청실에서 익산소방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하는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소철환 익산소방서장, 임승현 소방행정과장, 박지완 소방행정팀장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기탁은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익산소방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익산의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을 응원하는 나눔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지성 道 행정부지사, 취임 축하마음 나눔으로 돌려

희귀질환 앓는 아동에 따뜻한 나눔 실천

이지성 전북특별자치도 제46대 행정부지사가 취임 축하로 받은 화분들을 판매한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지성 행정부지사가 취임 축하로 접수된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에다가 추가로 100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 부지사가 과거 전주시 덕진구청장 재임 시절, 취임 축하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을 위해 기부했던 선례를 다시 실천한 것이다.

이번에도 이 부지사는 축하 화분을 뜻깊은 곳에 환원하겠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성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으며,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14살 아이의 기사를 읽고 그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지성 행정부지사는 “전북으로 다시 돌아와 도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며, “보내주신 소중한 축하의 마음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앞으로



농과 상생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평화의 고구마 수확’

지역사회와 평화 가치 나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는 15일 김제시 일원 경작지에서 북한민 및 사회단체, 자원위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고구마 수확’ 행사를 개최했다. ‘평화의 고구마’는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날 수확에는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자원위원과 북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직접 고구마를 캐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수확한 고구마는 지역 내 김제시장에인종합복복지관과 민생협의체에 전달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취지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자원봉사센터, 홀몸 어르신 목욕 봉사

부안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부안관광호텔 사우나에서 관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봉사와 전문 봉사를 진행하며, 점심 식사도 함께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대해적십자사 봉사단부안군협의회 △부안군여성자원활동센터 △밝은사회부안여성클럽 △한국부인회부안지회 △한중여성교류협회부안지회 △

한국여성소비자연맹부안지회 △한국생활개선부안군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부안군지회포순이 어머니봉사단 △아이코리아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읍·면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지원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세신 봉사도 어르신들의 청결 관리를 도왔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동충동, 취약계층 위한 ‘행복한 한끼’

남원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는 15일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음식점 ‘풍년칼국수’와 함께 취약계층 결식 예방 사업 ‘행복한 한끼’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충동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확인·선정해, 식

사 지원을 연계했다.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식비를 지원하고, 회원들은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다. 또한 풍년칼국수는 음식 조리과 배식을 맡아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 천천면 지사협 사랑의 김치나눔 사업 추진

장수군은 천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규택)가 ‘사랑의 김치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공백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한미음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하고, 대상자들의 안부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규택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눔과 돌봄이 이어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OCI(주) 군산공장 군산시에 키친타올 400개 기탁

OCI(주) 군산공장은 15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탁식을 열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준비한 300만 원 상당의 키친타올 400개를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든든한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 밀착형 생필품을 통해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달된 물품은 홀몸 어르신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400가구에 차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진로 OCI 군산공장 상무는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한결같은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CI(주) 군산공장 천사봉사대는 여름철 냉방 용품 지원, 겨울철 김장 김치 나눔 등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산불은 한순간, 예방은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실천:
불씨는 꼭 끄고,
담뱃불은 주머니에

**당신의 숲을
지킵니다**

작은 실수:
던진 불씨 하나,
모든 것을 태웁니다

당신의 미래를 잃습니다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신속한 신고, 피해를 줄입니다. 산불 신고 119

〈一事一言〉



해양관광 소비 2.1%의 수치심. 서해안 복합거점으로 체질 바뀌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천혜의 고군산군도·변산반도 품고도 전국 최하위권 해양 소비

전북특별자치도가 품은 서해안은 말 그대로 천혜의 보물창고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변산반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에 이르기까지 다 광역 시도가 부러워할 만한 독보적인 해양 자원을 자산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계 데이터가 드러낸 전북 해양 관광의 현주소는 차마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참담하다. 전국 해양관광 소비액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 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이 2.1%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의 열세를 넘어, 그동안 전북의 해양관광 정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결핍기식에 머물렀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실패의 성적표다. 부산, 전남, 강원, 경남 등 주요 해안 지자체들이 수년 전부터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급 숙박 시설과 특화 콘텐츠를 연계해 외지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동안, 전북은 해안도를 따라 바다 풍경을 눈으로 담고 한 끼 식사만 마친 뒤 유유히 빠져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의 고리를 단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다. 바다는 열려 있었지만, 관광객이 머물며 돈을 쓸 공간도, 즐길 거리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결과다.

이러한 고질적인 외화내빈(外華內貧) 구조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해양관광 강도(強道)’나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라는 구호는 허망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전북도가 뒤늦게나마 군산, 부안, 고창 등 서해안권 일대를 묶어 해양레저관광 복합 거점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

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방향성 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타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이번 복합거점 구상마저 과거처럼 단발성 공모사업 수주나 소규모 보도블록 교체 수준의 관제 사업으로 전락한다면 전북 해양의 미래는 영영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스쳐 가는 ‘관람형’ 탈피하고 ‘체류형 생태계’ 구축 사활 걸어야

전북 해양관광이 2.1%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관람형 관광’에서 먹고 자고 즐기는 ‘체류형 복합거점’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다.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는 전망대나 데크길을 깔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바다 위에서 요트와 키누를 타고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 향만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가족 단위 관광객과 럭셔리 휴양객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대규모 민간 콘도·리조트 및 고급 숙박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낮에는 바다 레저를 즐기고 밤에는 해안 상권에서 소비하며 최소 2~3일 이상 체류하는 ‘패키지형 휴양 생태계’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관광객의 머무는 시간이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진다.

둘째, 서해안 3개 시·군(군산·부안·고창) 간의 광역적 역할 분담과 중복 투자 방지다.

군산의 고군산군도 레저 자원, 부안의 격포·위도 권역 휴양 자원, 고창의 갯벌

상태 자원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다. 행정이 시·군별로 유사한 해양 레저 시설을 제각각 구축하는 각개전투식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서로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전락할 것이다.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어 3개 시·군의 해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커다란 ‘전북 서해안 해양 벨트’로 묶어내는 종합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관광을 넘어 해양 바이오 및 레저 장비 등 ‘연계 산업생태계’로의 확장이다.

해양관광은 단순히 음식을 팔고 방을 대여하는 3차 산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해양레저 장비의 정비·제조업, 갯벌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뷰티·헬스케어 해양 바이오 산업 등 2차·6차 산업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지역 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관광 거점 조성을 매개로 도내 기업들이 해양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전북의 바다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개발 공약과 정치적 수식어 속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전국 2.1%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개척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상향 공간이 그만큼 광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북도정은 이제 껌데기뿐인 행사나 일회성 관광객 수 집계에만 연연하지 말고, 민간 자본이 기꺼이 흘러들 수 있는 매력적인 복합거점을 다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머물고 싶고, 돈을 쓰고 싶으며, 다시 찾고 싶은 진짜 서해안 해양 거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꿀 유일한 길이 다.

사 설

동군산병원 괴롭힘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생명을 살리는 병원에서 정작 직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 동군산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방사선사가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데 이어 다른 직원들의 폭행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 후 보복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 조직 전반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동군산병원 직원들의 추가 피해 제보를 공개하며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제보에는 상급자의 폭행과 성희롱성 발언, 공개적인 질책은 물론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고 이후 오히려 파벌임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병원의 대응이다.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의 문제 제기와 추가 피해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직원 간 갈등이 아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신고를 묵살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병원 조직에서 관리자의 방관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착수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물론 신고 이후 병원의 대응, 관리자들의 묵인 여부, 보복성 불이익까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 고인의 사망과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독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조직의 구조적 문제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동군산병원도 침묵이나 형식적인 해명이 아닌 투명한 조사 협조와 책임 있는 자세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시

바다와 나비 /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흔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독자투고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로맨스 스캠’의 진실



반했을 뿐이다.

최근 이성적 호감이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자들은 자신을 해외 유학파 출신 사업가, 파

견 근무 중인 해외 기구 직원, 프리랜서 디자이너, 재력가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 접근한다. 오랜 시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신뢰를 쌓은 뒤, “한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나 통관 비용이 모자라다”, “안전한 해외 투자처가 있으니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며 금전을 요구한다.

화려하게 꾸며낸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일상에 속아 대충까지 받아 돈을 보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감정적 착취이기에, 피해자들은 의심하면서도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얼굴 한번 직접 보지 않은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 권유를 시작한다면 100% 범죄다.

만약 로맨스 스캠이 의심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별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별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대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전북 타임스

전북의 힘, 목소리, 정직한 언론

거짓없는보도, 정확한 뉴-스, 신뢰와 책임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는 신문

www.jeonbuktimes.co.kr

정읍의 가을, '꽃길'에서 '책길'까지

관광·체육·문화 공간 넓힌다



구절초가 피어나는 정원에서 내장산 단풍길로, 다시 숲과 도서관으로. 정읍의 가을을 즐기는 공간이 넓어진다. 정읍시는 지난 8일 구절초 꽃축제를 시작으로 내장산 단풍철 관광객 맞이와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에게는 치유의 숲과 체육시설, 책 축제를 선보이고 노후 도서관을 고쳐 쓴다. 방문객이 정읍에 더 오래 머물고 시민은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과 독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광·체육·문화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 구절초 꽃축제부터 내장산까지, 가을 관광의 폭 넓힌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행사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1일간 산내면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다. 전북특별자치도 제1호 지방정원인 이곳은 38.7ha 규모의 구절초·참여·꽃들·물결·술술 등 다섯 개

바가지요금을 줄이는 '3무 운동(캠페인)'을 벌이고, 순환버스 운행 관리와 쓰레기 수거, 이동진료소 운영도 병행한다. 오는 1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단풍을 보고 떠나는 여행에서 하루 더 머무는 여행으로 넓히기 위한 행사도 준비한다. 11월 21~22일 내장산 관광특구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정읍 웰니스 페스타'는 약 1000명이 참여하는 체류형 행사다.

메이플랜드 잔디광장에 500명 규모의 배낭 도보여행(백패킹) 야영장을 조성하고 월영습지 도보여행(트레킹), 요가, 달리기를 운영한다. 저녁에는 지역 먹거리와 거리 공연, 지역 상점이 참여하는 장터를 더해 내장산을 낮부터 밤까지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숙박과 체험이 더해지면 단풍철에 집중된 내장산 방문 수요를 다른 계절로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확이다.

생활체육 기반도 확충한다. 상평동 정읍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은 사진판독실·창고·화장실 설치와 경기 용기구 구입을 마치고 제2층 공인 점차를 밟고 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의 정읍체력인증센터에서는 체력 측정과 개인별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직장인도 이용하기 쉽도록 아침·오전·오후·야간반을 운영하며, 11월에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왕 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 중 종합 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

동진강변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전북 최초로 36홀 공인인증을 받은 생활체육 시설이다. 올해 9월 22일까지 3만 9121명이 이용했다. 정읍시민은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관외 이용자는 정읍시 체육시설 통합예약을 통해 예약한다.

열람실을 포함해 도서관 전체가 휴관하며, 7월 재개관을 목표로 한다. 휴관 기간에도 신태인읍행정복지센터 2층 임시 사무실에서 다른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과 외부 독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축제와 관광객 수용 대책, 산림 휴양, 생활체육, 독서 기반을 함께 정비해 가을의 방문 수요를 시민의 일상과 지역 소비로 연결할 방침이다. 행사별 참여 방법과 시설 이용 사항은 정읍시 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을 찾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고,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과 독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운영과 시설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구절초 꽃축제부터 내장산 단풍·웰니스 페스타까지
치유의 숲·생활체육·도서관 정비로 시민 일상도 풍성하게

정원으로 이뤄졌다. 축제에서는 정원 곳곳을 무대로 공연·체험·전시·판매 등 6개 부문, 3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읍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무료다. 일반 성인 입장료는 7000원이며, 이 가운데 4000원을 축제장과 정읍 시내 상하차거리 찾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와 자매·우호도시 주민에게는 특별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방문객의 축제 참여를 지역 상권 이용으로 잇기 위한 방식이다.

내장산 단풍철에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힘을 쏟는다. 시는 지난해 약 31만 7500명이 찾았던 내장산에 올해 약 3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부터 11월 22일까지 28일 동안 국립공원사무소·경찰 등과 함께 연인원 4388명을 투입한다.

교통·주차·환경·위생·안전을 두루 관리하고,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3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과 호객행위,

한국가요촌 달하에도 새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 신정동 달하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공연시설은 연면적 396㎡의 단층 건물로, 앉아서 100~15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식과 공연, 전시, 세미나 등에 활용하며 10월 공사를 마치고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 대관 범위와 사용료,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들어 시설의 이름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관광시설과 새 공간을 연계해 방문객이 머물며 문화를 즐길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 숲에서 쉬고 경기장에서 뛰고...생활 속 건강 선택지 확대

시기동 아양산 일대의 '정읍 치유의 숲'은 오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 체류료는 무료다. 산모·청년·장년·청소년·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로마 명상과 숲길 걷기, 요가, 체질별 한방차 다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황토길과 그물집대(해떡) 워터, 숲속 도서관도 활용한다. 스트레스 측정과 온열기구 이용을 연계해 몸과 마음을 쉬어갈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12월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3월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

관외 이용자가 1만원의 이용료를 낸 경우에는 정읍사랑상품권 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책축제 열고 노후 도서관 고쳐, 독서 공간도 새롭게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읍시립중앙도서관과 독서정원에서 제7회 책축제 '달빛소풍'이 열린다. '책 그냥 좋아서(書)를 주제로 그림책 역할극과 과자로 만드는 도서관, 권정민·은희경 작가 강연, 무언극(마임쇼)과 고전음악 공연 등을 선보인다. 오후 5시 기념식에서는 독서 유공 시민을 시상하고 시민 작가의 그림책 출간을 기념한다. 시립·작은도서관과 지역 서점, 학교, 독서 동아리가 함께 운영하는 체류 부스 16곳도 방문객을 맞는다. 시민은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찾아 책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비가 오면 행사 장소를 도서관 실내로 옮긴다.

1987년 준공한 신태인도서관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국비 7억9000만원을 포함한 10억1300만원으로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창호·냉난방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내년 1~6월에는 자료실과

부안사랑 부안 지킴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방법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은행
(<http://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기부 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금액	세액공제+답례품
100,000원	130,000원
200,000원	204,000원
1,0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2,436,000원
20,000,000원	9,411,000원

문의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고향사랑협력팀
TEL: 063-580-4938~9

지금바로 기부하러가기

1

자정기부
야생별
불꽃이
지킴니다

2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합니다

3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